

근현대사 속의 수의축산 이야기(4)



양 일 석
(재)수암생명공학연구원
서울대 명예교수
isyang@snu.ac.kr

서울대학교 수의학부의 발족과 미국식 수의임상교육

1946년 8월 22일 군정청은 군정 법령 제 102호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을 정식으로 공포하였다. 최초의 서울대학교 이사회는 미군정장관의 명으로 미군 문교부장, 차장, 고등교육국장, 그리고 우리나라 측 문교부장, 차장, 고등교육국장 모두 6사람의 관선이사로 구성하였다. 8월 26일 신설 서울대 총장에 군목인 법학박사 앤스테드(Harry B. Ansted) 대위를 정하고, 대학원장 윤일선, 대학원 부원장 조운제, 문리대학장 이태규, 의대 학장 심호섭, 법대 학장 고병국, 공대 학장 김동일, 농대 학장 조백현, 상대 학장 이인기, 사대 학장 장이욱, 치대학장 장명진, 예술대 미술부장 장발, 음악부장 현제명을 내정했다.

예술대는 학장이 아닌 학부장 내정이 특이하다. 그러나 여러 대학과 전문학교가 연합하여 국립서울대학교로 힘차게 출발하였으나 국대안반대(국립대학교 설립반대) 운동이 확산되면서 사회적으로 좌우의 이념 투쟁으로 전개되어 학사 행정이 마비 상태에 이르렀으며 거의 1년 만에 수습되었다. 이 무렵 한글 학교명에는 국립이라는 표기를 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1947년 8월부터 정상적 학사진행이 이루어졌다. 수의학부의 입학식은 47년 9월 10일 종로구 연건동 경성의학전문학교(현 홍익대학교 종로캠퍼스) 자리에서 거행되었는데 개교식과 같은 분위기로 거행되었다.

1947년 경성의학전문학교(京醫專)가 사용하던 건물을 인수 받은 서울농대 수의학부는 100평 정도의 단층 건물을 크게 개·보수한다. 당시 수의대 학생들(수원농림전문학교를 졸업한 학생 4명이 3학년에 학사편입)인 김교현, 이방환, 이

장락, 조춘근과 더불어 실습공간을 만들고 동물병원을 꾸미기 위함이었다. 이 일을 진두지휘한 사람은 Benjamin Blood(1914~1992)로 내부설계를 손수하고 계단교실(임상강의실), 대소동물입원실, 대동물진료용 보정틀, 약품창고, 조제실, 소동물 처치실, 교수실(임상 검사실 겸용)을 만들어 동물병원으로 사용하였다. 그는 미군정청 보건후생부 수의국(獸醫局) 소속의 민간 수의사이었는데 서울대학교 수의학부 객원 교수격으로 배치되어 상근으로 동물병원에 출근하였다. 또한 조수격으로 현역 육군 대위(수의장교)인 Brooks와 Vacura가 그를 보좌하였다.

동물병원 개·보수에 소요되는 기둥, 합판, 페인트, 철망, 못, 연장 등은 모두 미국에서 들여온 것으로 미군정청 보건후생부 Wm. Dietrich (소령)이 공급을 주선하였다. 완공된 후에는 각종 수의약품, 진료기구, 현미경을 포함한 간단한 검사기구, 영문타자기 등도 보급되었다(이방환, 1990). 이와 같이 Benjamin Blood는 일본식 수의임상을 배우는 우리에게 미국식 임상교육의 문을 열어주었다. 동물병원이 개설되자 수의학과 3학년이지만 수원농림전문학교를 졸업하여 수의사면허를 소지하고 있던 학생들은 Blood의 지도 아래 교대로 근무하면서 환축을 진료하여 임상 경험을 축적하여 갔다.

일제강점기 수의임상교육은 독일식교육(판서식)으로 말 임상위주 교육이고 미국식 임상교육은 산업동물 및 소동물의 실습식 임상교육이다. 수의사 강습회를 예로하면 일제 강점기의 임상강습회는 ‘말의 개복술, 말의 제왕절개술, 말의 거세술, 말의 파행진단 또는 말 산통 진료’ 등이었는데 비하여, 미군정 아래에서 실시된 강습회는 ‘소 제1위 절개술, 소의 제왕절개술, 소의 제각술, 소의 거세술, 개의 난소 절제술, 개의 단미·단미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본식 수의임상과 미국식 수의임상의 단면을 보여준다. 군정청 수의국 주최로 각 도의

수의행정관과 수의사 대표를 소집하여 부속동물병원에서 미국의 수의임상에 관한 시청각 영상 교육과 실기실습 교육을 시행하기도 했다.

1946년 3월 29일 각 부서의 확대 조치와 더불어 한국인 국장을 부장, 처장으로 승진 임용하였다. 그래서 두 명의 부장이 근무하는 ‘양부장제(兩部長制)’가 있었다.(김수자, 1997) 당시 맥아더 사령부는 행정기구의 확대조치에 대해 “조선 군정청의 기구개혁 목적은 조선인 관리에게 전보다 한층 행정적 책임을 맡기기 위한 조치”라 하였다(조선일보, 1946년 6월 10일). 이를 미루어보아 보건후생부 수의국장으로 한영우와 Dietrich 두 분이 같이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적어도 Blood가 현역으로 근무한 46. 11. 17까지 수의행정 책임자는 Blood로 여겨진다. 후속참조). 김교헌의 회고록에는 Dietrich를 “별하는 일 없이 학(부)장 영어나 가르쳐주는 사람”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수의사로써 현역 소령은 제일 상급자이었다. 또한 그는 보건후생부 미국인 수의국장으로 기록되기도 하였다(수의대 60년사). 한국인 수의국장(한영우)이 근무하였기에 미국인 수의국장은 학교에 있어도 무방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타인인지 미네소타대학교 수의과대학 Arnold (1960, 7. 31~1961, 6. 30) 1년 동안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파견 근무) 보고서에는 수원농림전문학교 수의축산학과가 수의와 축산으로 분리한 후 수의를 서울로 옮기게 한 분으로 Blood와 Dietrich 두 분을 들고 있다.

그러나 김교헌은 회고록(1980)에서 Blood를 지칭하여 “수의대를 창립하고, 또 행정부의 기구개혁을 단행한 장본인이요, 중심인물이었는데 이 분은 참으로 판단력이 빠르고 대단한 실천력이 있는 분이였다. 스스로 자임했던 수의국장 자리는 내팽개쳐 놓고”라 기술하고 있고, 워싱턴 주에 생활하는 조병을 교수(수의학부 2회 졸업)도 한 분을 든다면 당연히 Blood라 기억하였다. 또한 이방환의 회고록에도 Blood의 여러 활약상을 볼 수 있다. 최근 Blood의 둘째 아들(Brian)은 서신에서 Blood는 현역으로 46년 6월말쯤 한국에 왔고 46.11.17 공군중령으로 전역하였는데 일 계급 승진하여 예비역 대령이 되었으며, 미군정이 끝나는 무렵인 48년 7월 가족과 함께 귀국하였다. 또한 한국에서의 그의 역할은 “Chief Advisor on Veterinary Affairs to the Department of Public Health and Welfare of the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라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보면 수원농림전문학교 수의축산학과 수의를 분리하여 서울로 옮기고 농림부 농산국 축산과 소속의 수의를 보건후생부 수의국으로 만들고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수의학부에서 일본식 수의임상교

육을 미국식 임상교육으로 문을 연 Blood는 미군정 기간 한국에 체류하면서 수의계에 대단히 큰 기여를 한 분으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교수와 자격기준

해방전 경성제국대학을 비롯한 관립전문학교의 교직원은 거의 모두 일본인이었기에 해방직후 고등교육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교수요원의 충원이었다. 그러므로 종래 학계에서 활약하던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여 교수진을 재편성하고 교육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1946년 12월 미군정청 문교부는 대학교 교직원의 새로운 직급을 설정 발표하였으며 그에 대한 각각의 자격기준도 발표하였다. 즉 그 명칭으로서 교수, 준교수(현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가 있으며 이들을 합하여 教師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이것이 곧 새로운 직급의 설정을 의미하였다. 그 자료 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1946년 12월 3일 경향신문)

교수 : 박사학위소지자, 이와 동등 이상의 학계 권위자 및 전문학교 졸업후 5년이상 연구한 자로서 12년간의 경험년수를 요함, 준 교수: 석사학위소유자, 1년간 대학원에서 연구한 자, 및 전문학교 졸업후 4년간 연구한자로서 10년간의 경험년수를 요함,

조교수: 석사학위소유자 및 전문학교 졸업후 3년간 연구한 자로서 8년간 경험년수를 요함,

전임강사 : 학사학위소유자 및 전문학교 졸업후 3년간 연구한자로서 4년간의 경험년수를 요함.

이와 같은 새로운 직급은 미국제도의 영향을 받은 것이 많았다. 준교수라는 직급이 새로이 만들어진 것이 그것이다. 이때의 준교수는 곧 부교수로 바뀌었다. 이때에 전임강사의 직급이 생긴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 밖에 교수조무원이 있어서 오늘날 유급조교에 상당한 것이지만 강의를 담당할 수 있었던 점에 그 차이가 있다(서울대학교 20년사, 1966) 위의 자격에 경험년수는 필수 잣대가 아닌듯 권이혁(서울의대 1회, 총장, 장관역임)은 학사(47. 7 졸업)자격으로 수의학부 전임강사(47년10월) 발령을 받았고 2개월 후에는 수의학부 교무과장에 임용되기도 하였다. 그분을 인터뷰하기 위하여 만났을 때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수의대에 임용되신지 2개월 정도 되었을 때 교무과장이 되셨습니다. 무슨 사연이라도 있습니까?”, “그때 김용필 교수께서 학부장이었는데 나를 부르더니 교무과장을 맡아달라고 하여 당연히 못한다고 사양을 했지. 그런데 얼마 후 다시 불러 다시 교무과장을 맡아달라

고 하시어 도저히 못한다고 하니 교무과장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맡아야 한다고 설득하시어 할 수 없이 내가 맡았지.” 당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자신들과 전문학교 졸업생의 보이지 않는 경계를 말해주는 듯하다. 이러한을 보는 필자는 9. 28 수복 후 김용필 학부장에 대한 이른바 “도강파”의 문제제기나 가축위생연구소 김중희 소장에 대한 인사 불만도 여기서 비롯한 것으로 여겨진다.

학기제

일제강점기에는 당연히 일본과 같이 4월 학기제였다. 미군정시에는 학기의 공백을 만들지 않기 위함도 있었겠지만 자연히 미국식으로 9월 학기제로 하였다. 그리하여 서울대학교 수의학부의 첫 입학식이 47년 9월 10일 거행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후 국회에서 우리나라의 학기는 일본식의 4월 학기가 적합한 것으로 결의하였다. 아마도 일본식의 생활습관과 그 당시는 지금 보다 훨씬 춥고 난방 대책이 어려운 점도 감안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이에 서울대학교는 한 학기를 당기면 학사일정에 혼란이 올 것을 감안하여 1950년 입학생의 학기를 6월로 하였다. 따라서 1950년 입학생은 입학식이 있는 얼마 후 6.25전쟁이 발발하여 피란을 가게 되었다.

1951년은 중공군이 참전하여 다시 서울을 내어주는(1.4 후퇴)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50년 6.25발발 당시와 달리 대학의 집행부가 부산으로 피란하게 되어 이른바 전시연합대학체제로 학사운영이 진행되었기에 그 준비관계로 51년 입학생은 오히려 9월 학기제가 되었다(학적부에 9월 1일 입학으로 표기). 서울대학교 수의학부도 51년 입학생은 월반하는 형식을 거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에 의하면 1952. 3. 28 피난지 부산에서 제7회 졸업식이 거행되었고 같은 해 입학식은 4월 13일에 거행되어 4월 학기제가 정착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4월 학기제가 실시되었지만 5.16 군사정부(61년) 다음해인 1962년부터 3월 학기제로 변경되었다.

전남대학교(수의)는 51년 9월1일 축산학과로 인가되어 모집되었으나 그해 수의학과로 전환되었고 52년 4월에 새로운 학년이 시작됨에 따라 재학생은 2학년으로 월반(?)하는 것으로 해결되었다. 전북대학교(수의)는 첫 모집이 51. 8. 29일에 있었는데 전남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재학생은 2학년으로 월반(?)하는 것으로 해결하고 4월 학기제로 정착하였다. 서울대학

교(수의)의 학기제를 보면 49년까지는 9월 학기제, 50년 6월 학기제, 51년 4월 학기제로 가는 듯하였으나 6.25동란으로 51년 4월 학기(전학기)가 시행되지 못하고, 52년부터 4월 학기제로, 62년부터 현재의 3월 학기제로 정착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수립후의 수의축산 직제

48. 10. 3일자 동아일보는 농림부 각국장 내정이라는 기사에서 “농림부에서는 동부(同部)에 부여된 중책에 감(鑑)하여 직제제정에 한 걸음 앞서 각국책임자에 대한 인사를 비공식으로 발령하고 지년일부터 집무케 하고 있다는 데 인사내용은 다음과 같다.”에서 차관 강정책, 양정국장, 축산국장, 산림국장, 농림지도국장, 농지국장의 내정 발표가 있었는데 축산국장에는 미군정청 농산(農産)국장이었던 현근(玄謹)이었다. 그러나 김영환 회고록(1998)에는 이분은 하루도 출근하지 않고 사표를 제출하여, 이근태 당시 초대 수의학부장이 축산국장으로 발령되었다. 그리하여 실질적 초대국장은 이근태라고 기술하였다.

대통령령 제23호 (1948년 11월 4일) (장관 조봉암) 제3조 농림부에 비서실, 농정국, 양정국, 축정국, 농지국, 산림국 및 농촌지도국을 둔다. 또한 제7조 축정국에 축정과 및 수의과를 둔다. 그리고 대통령령 제309호 (1950년 3월 31일) 제3조 농림부에 총무과, 경리과, 조사통계과와 농정국, 산림국, 축정국, 양정국, 농지국을 둔다. 또한 제9조 축정국에 축정과와 수의과를 둔다고 하였으며, 수의과는 가축위생, 축산물검사, 도장(도축장), 및 우유처리장의 지도감독, 중앙가축위생연구소 및 가축검역소와의 연락조절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고 하였다. 이 규정 말미에 “대통령령 제23호 농림부직제는 이를 폐지한다”라고 하여 대통령령 상의 중복을 피하였다. 실질적 업무는 일찍 이루어졌겠지만 법적인 뒷받침은 이 무렵에서야 행하여 졌음을 볼 수 있다. 1961년 10월 2일 각령 제 182호로 축정국을 축산국으로 하고 축정과와 가축위생과를 두기로 하였다. 1962년 3월 29일 각령 614호로 축산국에 축산과를 신설하여 축정과, 가축위생과, 축산과 체제가 되었다.

맺음말

고종 32년(1895년 3월 25일) 반포한 농상공부 관제에 농상공부에는 농무국(農務局)이 있어 농업, 산림, 수산, 목축, 수렵, 잠업(蠶業), 차(茶), 인삼 및 농사에 관한 일을 맡는다고

하여 중앙부서에 목축(축산)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였다.

대한제국 시절인 1908년 1월 28일 (융희1년) 농상공부 분과규정으로 농무국에 농무과, 축산과, 국유 미간지과(美墾地課)의 3과(한일병합이 있는 해인 1910년 3월 5일 농무과는 농정과로, 미간지과는 개척과로 변경)가 있어 처음으로 중앙행정기에 축산과가 신설되었으나 한일병합 이후부터 1938년 8월까지는 농무과에서 축산업무를, 축산과가 존치된 5년 3개월(38. 8. 8~43. 11. 30)은 축산과에서, 1943년 12월 이후는 다시 농무과에서, 직제 개편으로 농무과가 폐지된 44. 12. 1부터는 농산과(農産課)가 그 일을 맡았다, 그리하여 미군정정출발시 축산업무는 농상국 농산과 관할이었다. 한편 대한제국 시절 수의사는 군부에서 군무국 마정과와 농상공부 농무국 농사과의 이원체제이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위생을 경찰이 맡아있었으므로 수원고등농림학교(1937~40) 교과과정에 수의경찰 및 법규가 포함되어 있었다.

중앙행정 기구에서의 수의는 미군정청 보건후생부 수의국의 시대가 있었다. 이 글에서 필자가 수의와 축산을 구분하지 않은 것은 GDP가 낮은 경우는 수의와 축산의 구분이 어려울 뿐 아니라 실제 구분의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가기

이 글을 쓰면서 한국수의학사(국립검역원), 미군정기의 남한 행정체제 (신상준), 논문으로는 농우목축시험장(1884~1906)의 기구변동과 운영(김영진, 홍은미), 조선총독부의 식산행정과 산업관료(정준영)을 많이 참고하였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문화 www.naver.com, www.daum.net, www.archives.go.kr(국가기록원), [관보시스템\(gb.nl.go.kr\)](http://gb.nl.go.kr) 도움을 크게 받았다.

과거사를 뒤돌아보는 글에서 항상 느끼지만 인명의 경우 선배, 은사님들에 대하여 존칭을 사용하지 못한 것이 죄송한 마음이다. 해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미한인수의사회지에 연재된 김교헌 회고록을 챙겨 보내주신 신동국원장님과 그림을 도와 준 권순구선생께 지면을 통하여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김종희소장 스토리를 소상하게 전해주시는 이학철교수(당시 가축위생연구소 병독부 실무책임자)께서 지난 2월 19일 타계하셨습니다. 명복을 빕니다. 🙏

참고 문헌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한국수의학사(집필; 이시영), 2010
- 김교헌: 회고록(재미수의사회 회보 10권 2호,1980년)
- 김남수, 윤종배, 이재은, 최병택, 홍동현: 100년 전의 한국사 진실과 미래, 2010, pp67~113
- 김도형: 일제의 한국농업정책사연구, 한국연구원, 2009, pp 143~145
- 김수자: 미군정기 통치기구와 관료임용정책 : 중앙행정기구 개편과 행정관료의 사회적 배경을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5 pp.240~270 도서출판 한울, 1997
- 김영진, 홍은미: 농우목축시험장(1884~1906)의 기구변동과 운영, 농업사연구 5(2): 71,2006
- 김영한 : 축산과 함께 걸어온 50년, 1998 pp 354~355
- 서울대학교20년사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 20년사 P43,1966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60년사 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60년사, 2008
- 서울대 행정대학원 : 조선총독부 기구 해설 조사자료, 제5호 1960.12
- 신상준: 미군정기의 남한행정체제 , 한국복지행정연구소, 1997
- 이방환: 흑판을 등지고 돌아본 수의축산반세기, 이방환박사 정년기념사업회, 1990
- 정준영: 조선총독부의 식산행정과 산업관료, 사회와 역사 102:85, 2014
- 조선연감(1948년판) 조선통신사편, 서울 pp127~8 (1947년 12월 1일 발행)
- 조선연감(1947년판) 조선통신사편, 서울 (1946년 월 일 발행)
- 조선총독부 농사시험장 25주년 기념지 / 농촌진흥청 [편], 2008 pp523~4
- 한국농촌경제연구원편찬 : 한국농정50년사(축산정책편) p1781
- www.naver.com
- www.archives.go.kr(국가기록원)
- gb.nl.go.kr(관보시스템)
- www.daum.net